

현대 중국어 준접사 ‘X+味’의 인지적 분석

이 선 희*

〈目次〉

| | |
|----------------------------|---------------------|
| I. 서론 | 1. 어휘 생산성 및 위치 고정성 |
| II. 준접사의 개념 및 형성 기제 | 2. 의미의 범주화 및 추상화 |
| 1. 준접사의 개념 | IV. ‘X+味’의 인지 기제 분석 |
| 2. 준접사의 형성 기제 | V. 결론 |
| III. ‘X+味’의 기능, 구조, 의미적 분석 | |

I. 서론

본 연구는 현대 중국어의 ‘X+味’를 대상으로 ‘味’의 준접사적 경향 및 의미적 속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준접사 형성 기제를 살피어 언어와 신체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味’는 혀로 느낄 수 있는 미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코로 느낄 수 있는 후각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 의미를 바탕으로 실질형태소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味道’, ‘味覚’ 등과 같이 첫음절에 위치하여 단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명사, 형용사, 동사 어근과 결합하여 ‘X+味’의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이 중, 본 연구는 ‘X+味’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강사

접사는 문법화를¹⁾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어휘적 의미가 소실되고 문법적 요소로 변화한 것으로 접두, 접요, 접미파생을 통해 단어를 형성한다.²⁾ 그러나 이와 비슷한 요소로 파생력은 강하지만 어휘적 의미가 허화되지 않은 성분 또한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이를 ‘준접사(类词缀 quasi-affix)’라고 명명하고 있다. 즉, 준접사는 단어 형성에서 접사와 문법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의미적 기능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甜味’, ‘香水味’, ‘酒味’, ‘烟味’ 등과 같은 어휘에서 ‘味’는 혀로 맛보거나 코로 맡을 수 있는 ‘맛’, 또는 ‘향’, ‘냄새’의 의미를 가진 실질형태소로 ‘어근+어근’의 결합이다. 그러나 ‘学术味’, ‘中国味’, ‘深味’ 등에서 ‘味’는 실질적 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味’는 ‘느낌’ 또는 ‘분위기’의 어휘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어근과 결합하여 파생되는 문법적 기능도 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어근+준접사’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나 처음 준접사라는 개념을 제기하며 41개의 예를 제시한 吕叔湘(1979) 및 朱德熙(1982), 马庆株(1988), 沈光浩(2011) 등 준접사 관련 대다수의 논저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준접사를 수집하여 체계화한 尹海良(2007)에서도 ‘味’를 준접사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李春玲(2007)의 연구에서 ‘味’를 준접사로 분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³⁾ 이에 준접사를

1) 접사 관련 연구에서 ‘문법화(語法化, grammaticalization)’와 ‘허화(虛化, bleaching)’, 두 용어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윤유정(2004: 218-219)은 ‘문법화’는 ‘통사 기능 각도에서 그 변화발전을 보는 것’, ‘허화’는 ‘단어의 의미 각도에서 그 변화발전을 보는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즉, 이 두 용어는 동일한 언어현상을 나타내지만 문법화의 개념이 허화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준접사는 통사적 및 의미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문법화’라고 용어를 사용하되, 의미의 ‘소실’을 강조할 때는 ‘허화’라고 기술하여 접사와 준접사의 의미 기능적 차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2) 중국학계에서는 ‘전첩(前綴)’, ‘중첩(中綴)’, ‘후첩(後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묶어 주는 상위 개념으로 ‘사첩(詞綴)’을 설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용어에 따라 ‘접두사’, ‘접요사’, ‘접미사’,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장호득 2021: 199참고).

3) 李春玲(2007)의 선행연구 분석에 따르면 徐世荣(1984)의 《双音缀词的终重音

규정할 수 있는 특성인 ‘어휘 생산성’, ‘위치 고정성’, ‘의미의 범주화 및 추상화’ 측면에서 ‘味’의 준접사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학계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은정(2004)의 연구에서 ‘준접사’에 대한 부분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준접사 개별 어휘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는 박홍수·김영희(2010)에서 시작되어 준접사의 조어 특성 및 문법 기능, 의미적 특징을 밝히며 국내학계 준접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어, 최근 연구에서는 준접사 ‘风’, ‘客’, ‘迷’, ‘奴’, ‘秀’, ‘控’, ‘控’, ‘癖’, ‘硬’, ‘晒’, ‘软’ 등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준접사 활용 양상, 특성을 살피고 현대 중국어의 조어, 특히 신조어 형성에서 파생력이 높음을 밝혔다.

한편,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味’ 또는 ‘X+味’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맛을 나타내는 구체적 감각인 ‘甜’, ‘苦’, ‘辣’, ‘酸’, ‘咸’과 같은 미각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언어와 신체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미각어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미각의 근본인 ‘맛’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학계 또한 비슷한 실정이며, 李春玲(2007)의 연구만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X+味’가 준접사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여러 연구에서 준접사의 구체적인 예로 제외되었음을 지적하며, 구조 및 화용적 기능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휘의 수가 많지 않고, 준접사 형성 기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부한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올림말로 수록된 ‘X+味’를 전수 조사(全數調查)하고자 한다. 또한 말뭉치를 통해 다양한 활용을 살펴보고, 앞선 李春玲(2007)의 연구에

规律》에서만 ‘味’를 준접사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원문에서 밝힌 논저명과 참고문헌에서 밝힌 논저명이 달라 직접 자료를 확보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 제시한 어휘를 추가하여 유형화 및 목록화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味’가 준접사임을 밝히고, 준접사화 과정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준접사의 개념 및 형성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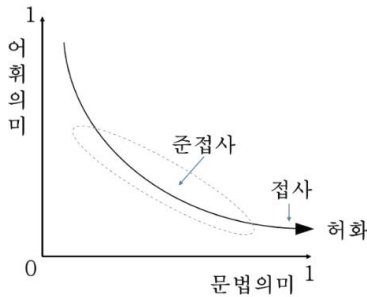
준접사는 다양한 파생을 일으키며 중국어 어휘 체계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특히, 전통적인 중국어 어휘의 조어법은 ‘어근+어근’의 합성법이 주된 방식이었으나 최근 신조어 형성에서 준접사는 강한 파생력으로 인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준접사가 개념 의미 및 문법 기능적 의미를 모두 갖추고 새로운 의미 형식으로 가미되어 단어 형성에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준접사의 개념과 형성 기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준접사의 개념

주지하다시피 접사는 본래 어근으로 사용되었던 실사가 언어 발전 과정에서 문법화를 거치며 허화되어 추상성을 지닌 문법적 요소로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 발전 단계 과정에는 어휘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문법 기능적 활용이 강하게 나타나는 형태소 또한 존재하는데, 이를 중국학계에서는 ‘类词缀(준접사)’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吕叔湘(1979: 41)에서 처음 ‘类前缀’, ‘类后缀’라는 용어로 제기한 것으로 ‘어떤 형태소는 접두사나 접미사로 간주할 수 있지만 순수한 접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类(유사)’를 덧붙인 것이며 의미상 완전

4) 국내학계의 관련 연구에서는 ‘类词缀’를 ‘준접사’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준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히 허화되지 않아 간혹 어근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陈光磊(1994: 23)에서는 ‘준접사는 접사와 비슷한 형태소이지만 접사 만큼 허화 정도가 크지는 않고 어근만큼 실제적 의미를 갖지 않은 반실반허(半實半虛)의 상태이며 단어 결합 시, 결합면이 상당히 넓은 형태소’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접사와 준접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휘적 의미 유무, 즉 허화 여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허화에 따른 접사와 준접사의 차이

〈그림 1〉에서 어휘의미에서 문법의미로 향하는 화살표는 허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접사는 어휘의미가 0에 가까워지면서 소실되고 문법의미만 갖고 있다. 그러나 준접사는 어휘의미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문법의미에 가까워지는 중간 단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준접사의 허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준접사에 따라 어휘의미가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준접사는 허화 정도에 따라 어근이 접사로 변화하는 중간에 놓인 과도기적 형식으로 의미가 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사가 어휘의미를 소실하면서 음이 약화되거나 경성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⁵⁾ 준접사는 음성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5) 朱亚军·田宇, 〈现代汉语词缀的性质及其分类研究〉, 《学术交流》 第2期, 2000, 135쪽.

눈여겨볼 만한 점은 준접사의 이 실제적인 의미는 형태소가 본래 갖고 있는 의미, 즉 기본의미⁶⁾가 아닌 이와 관련성을 이룬 다른 의미로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 확장 과정과 준접사 형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준접사의 형성 기제

하나의 어휘항목이 의미와 1:1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일부 어휘는 여러 의미가 서로 내적 긴밀성을 이루며 다수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는 어휘가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의미와 의미적 유사성, 인접성을 이루며 확장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味’의 《现代汉语词典》(第七版) 기술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1〉 ‘味’의 사전기술 양상(《现汉》 2016: 1368)

| 의미 구분 | 의미 항목 |
|-------|---|
| 기본의미 | ① (味儿) [名]物质所具有的能使舌头得到某种味觉的特性：味道 滋味 甜味儿 津津有味。 |
| 확장의미 | ② (味儿) [名]物质所具有的能使鼻子得到某种嗅觉的特性：气味 香味儿 这种味儿很好闻。 |
| | ③ (味儿) [名]意味；趣味：文笔艰涩无味 这本书越读越有味儿。 |
| | ④ 指某类菜肴、食品：腊味 美味 野味 山珍海味。 |
| | ⑤ 辨别味道：体味。 |
| | ⑥ [量]用于中药：这个方子共有七味药。 |

6) ‘기본의미’는 달리 말하면 ‘원형의미’로서 다의어가 가진 여러 의미 중, 가장 대표적인 의미이다. 반면, 확장의미는 기본의미와 유사성 및 인접성을 바탕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 확장 과정은 인지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이와 유사한 다른 대상을 동일하게 명명한 결과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味’의 기본의미는 ‘맛’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味’는 ②번 의미 항목과 같이 ‘냄새’까지 표현한다. 즉, ‘입’에서 지각한 감각과 ‘코’에서 지각한 감각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 전이는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인지한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는 공감각적 전이에 의해 확장된 것이다.⁷⁾ 또한 ③, ④, ⑤, ⑥번 의미 항목은 바로 ①번 의미 항목인 ‘맛’과 유사성 및 인접성을 바탕으로 확장된 것으로 각각 ‘재미’ 및 ‘흥취’, ‘음식’, ‘맛을 보다’의 의미 및 ‘약품의 종류를 세는 단위명사’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의미 항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확장되는 과정은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experientialism) 관점에서 우리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신체화(embodiment)되어 있다는 가정이 뒷받침된다. 체험주의적 관점에서 개념 체계는 신체적, 물리적 차원과 정신적, 추상적 차원을 포괄하는 경험이 누적되고 총체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다.⁸⁾ 즉, 언어는 일상생활의 반복된 체험에서 비롯된 인지 작용의 산물로서 인지, 체험, 문화 등과 상관관계를 이루며, 의미 확장은 구체적으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⁹⁾ 기제를 통해 발현된다.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익숙한 대상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추상적이고 낯선 대상인 목표영역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때 두 영역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사상(mapping)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A는 B이다]라는 은유적 개념을 형성한다. 예컨대 혀, 코와 같이 신체기관을 매개체로 하여 느끼는 익숙하고 구체적인 감각 속성인 ‘味’

7) 이선희(2012: 529-530)에서는 ‘공감각적 전이’에 대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의미가 전이되는 현상으로 공감각은 생리, 심리 현상이면서 동시에 언어, 문화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8) 임지룡·임혜원, <연결 도식과 그 은유적 확장>, 《한글》 제276집, 2007, 106쪽.

9)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는 인지언어학의 창시자 Lakoff와 Johnson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전통적인 은유 및 환유와 구별하기 위해 ‘개념적’이라는 용어를 더한다. 즉, 전통적인 관점에서 은유와 환유를 수사적 장치로 여기는 것과 달리,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외부 세계에 대한 개념 형성 기제로 여긴다는 차이가 있다.

가 근원영역이 되어 추상적인 목표영역인 ‘재미’, ‘흥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두 영역은 감각적 유사성에 의해 사상되어 [재미, 흥취는 맛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형성한다.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는 단일 개념 영역 내에서 인접성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하나의 개념적 개체를 매체로 하여 목표 대상인 다른 개념적 개체에 정신적으로 접근하는 인지 과정이다.¹⁰⁾ 이를 통해 [B로 A를 대신함]이라는 환유적 개념을 형성한다. 예컨대, ‘맛’으로 ‘맛’이라는 감각 속성을 가진 실체인 ‘음식’ 및 이를 행하는 동작적 속성인 ‘맛을 보다’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대신함]의 환유적 개념을 토대로 각각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함], [속성으로 행위를 대신함]으로 개념화된 것이다. 이처럼 환유는 특성을 현저하게 부각시켜 지시하려는 대상을 명료하게 나타낸다.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토대로 확장된 의미는 점차 추상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된 의미로 범주화(類化)되어¹¹⁾ 문법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준접사는 조어 생산력이 뛰어나 중국어의 조어 방식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¹²⁾

10)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은유와 환유 그리고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2018, 47쪽.

1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범주화’ 및 ‘추상화’란 沈光浩(2011: 110)에서 각각 ‘類化’, ‘泛化’라는 용어로 제시한 것으로, ‘범주화(類化)’란 의미적 측면에서 준접사가 파생하는 어휘는 공통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추상화(泛化)’란 의미가实处에서 虛로 변화하는, 즉 구체적인 의미가 추상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범주화’, ‘추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준접사 특성으로 ‘공통된 의미 양상’ 및 ‘기본의미로부터 확장되어 추상화된 의미’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類化’ 및 ‘泛化’를 그대로 음역하여 ‘유화’, ‘범화’라는 용어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명칭의 개념적 의미 및 한국어 화자 어감에는 ‘범주화’, ‘추상화’라는 명칭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박홍수·진윤영, <신생 준접사의 생성원인 및 조어 특징>, 《중국학보》 제73집, 2015, 4쪽.

Ⅲ. ‘X+味’의 기능, 구조, 의미적 분석

언어는 발전 및 변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모한다. 준접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준접사의 어휘 파생은 개방적이며, 그 구체적인 예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언어 화자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접사를 규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沈光浩(2011)는 준접사의 특징으로 의미, 구조, 기능적 기준을 제시하였다.¹³⁾ 즉, 의미적으로는 추상화되어 하나의 공통적 의미자질로 범주화되어 나타나며, 구조적으로는 접두·접요·접미사와 마찬가지로 단어 형성에서 위치가 고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능적으로는 다양한 어휘를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하나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준접사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다.¹⁴⁾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X+味’가 지니고 있는 준접사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기능(어휘 생산성), 구조(위치 고정성), 의미(범주화 및 추상화)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어휘 생산성 및 위치 고정성

‘어휘 생산성’이란 단어 파생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소의 조어 능력

13) 이를 박홍수·제윤지(2019: 25)에서는 좀 더 구체화하여 ‘의미의 허화’, ‘위치 고정성’, ‘어휘 생산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의 허화’는 어휘적 의미를 소실한 것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의 허화’를 다소 수정하여 ‘의미의 범주화 및 추상화’로 논의하고자 한다.

14) 이 외에도, 박홍수·진윤영(2015: 9)에서는 준접사의 특징에 대해 ‘유추’를 제시하며,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나 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의미 및 기능적 측면에서 沈光浩(2011)에서 제시한 개념과 일부 교차점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 확장 및 파생은 인지 및 심리 과정과 깊은 상관성을 전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

이 비교적 강하여 범주화 기능의 작용 하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¹⁵⁾ 즉, 몇몇의 예만으로 이를 준접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력의 강약을 통해 준접사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파생된 어휘는 의미적으로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로부터 추상화되어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 올림말로 수록된 ‘X+味’를 조사한 결과, 총 54개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 중, ‘味’가 준접사로 활용된 예 21개를 X의 품사 및 음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⁶⁾

〈표 2〉 《现汉》에 올림말로 수록된 ‘X+味’의 준접미파생

| X의 품사 | X의 음절 | 예 | 시 |
|-------|-------|--|---|
| 명사 | 1음절 | 风味, 京味儿, 况味, 南味, 品味, 气味, 情味, 趣味, 兴味, 洋味儿, 野味, 意味, 韵味 | |
| | 2음절 | 火药味, 人情味, 土腥味儿 | |
| 형용사 | 1음절 | 甘味, 美味, 异味 | |
| 동사 | 1음절 | 余味, 滋味 | |

사전에 올림말로 수록된 ‘X+味’의 준접사적 활용 양상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다만, 일부 어근과 결합하여 음절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X에 위치하는 어근은 명사성 및 1음절 어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이와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李春玲(2007)의 연구에서 총 34개

15) 박흥수·이지은, 〈준접사 ‘X秀’에 관한 고찰〉, 《중어중문학》 제76집, 2019, 120쪽.

16) 상술한 바와 같이, 사전 조사 결과 ‘X+味’는 총 54개이며, 이 중 준접사로 활용된 예는 21개로 38.8%이고, ‘어근+어근’의 결합, 즉 합성어는 33개로 61.2%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수록된 ‘X+味’는 준접사적 활용보다 합성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 〈표 2〉에서 제시한 준접사 양상 외에 합성어로 나타난 올림말은 본고 〈표 5〉에서 제시하였다.

를 수집하였다.¹⁷⁾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李春玲(2007)에서 제시한 'X+味'의 준접미파생

| X의 품사 | X의 음절 | 예 | 시 |
|-------|-------|---|---|
| 명사 | 1음절 | 楚味, 古味, 官味, 年味, 人味, 乡味 | |
| | 2음절 | 粉脂味, 风尘味, 佛法味, 广告味, 军人味, 领导味, 南国味, 泥土味, 女人味, 人气味, 人文味, 商业味, 文化味, 学术味, 学术味, 娱乐味, 中国味 | |
| | 3음절 | 红五类味儿, 小女人味 | |
| | 4음절 | 知识分子味 | |
| 형용사 | 1음절 | 红味, 苦味, 深味, 邪味, 愚味 | |
| | 2음절 | 苦涩味, 腩腩味儿 | |
| 동사 | 1음절 | 思味 | |

위의 〈표 3〉에서 'X+味'는 좀 더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X+味'의 어휘 생산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좀 더 분명해졌다. 특히, 신조어로 형성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준접사의 특징 중 하나로, 어휘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사전 올림말 양상과 동일하게 명사성 성분이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신조어 형성에서는 2음절 어휘가 가장 많다는 차이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말뭉치(BCC)에서 명사만을 대상으로 분석 및 수집한 후 〈표 2〉와 〈표 3〉에서 제시한 것과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총 57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7) 李春玲(2007: 60)에서는 근현대 대표적 저서 100편 및 당대 산문, 잡지, 신문 등에서 'X+味'를 수집하여 X의 음절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단음절 70여 개, 2음절 140여 개, 다음절 10여 개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예를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34개만 목록화하였다.

18) 준접사는 신조어 형성에서 대량의 어휘를 파생시킬 수 있는데, BCC(北京语言大学大数据与语言教育研究所 <http://bcc.blcu.edu.cn>) 말뭉치의 경우 웨이보(微

〈표 4〉 말뭉치에 나타난 'X+味'의 준접미파생

| X의 품사 | X의 음절 | 예 | 시 |
|-------|-------|---|---|
| 명사 | 1음절 | 兵味, 潮味, 脾味, 土味, 星味, 贼味 | |
| | 2음절 | 悲剧味, 沧桑味, 成人味, 城市味, 大叔味, 地方味, 都市味, 儿童味, 儿戏味, 国际味, 基层味, 家常味, 江湖味, 金融味, 金石味, 军阀味, 科技味, 客家味, 历史味, 利欲味, 流氓味, 民谣味, 民族味, 明星味, 男人味, 母亲味, 霓虹味, 年龄味, 农村味, 强盗味, 人间味, 少女味, 世间味, 世界味, 市侩味, 书法味, 书卷味, 淑女味, 书生味, 太阳味, 文艺味, 物质味, 乡村味, 新潮味, 学生味, 学院味, 哲学味, 政绩味, 政治味 | |
| | 4음절 | 资产阶级味 | |
| | 영어 | e味, GAY味, HI味 | |

말뭉치를 통해 '味'는 다양한 신조어를 파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어휘 생산성이 높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준접사와 어근의 결합은 고정성이 낮아 다양한 어휘를 파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약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¹⁹⁾ 흥미로운 점은 'e味', 'GAY味', 'HI味'와 같이 영어 자모와 함께 쓰이는 양상도 보이는데,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 2003年上海科技节正式开幕, 开幕式简短而“e味”十足。(BCC)
2003년 상하이 과학기술축제가 정식으로 개막하였다. 개막식은 간결하였고 정보과학기술의 분위기가 가득하였다.
- (2) 最讨厌娘的要死的人说话各种GAY味。。(BCC)
나는 계집애 같은 남자가 질색이야! 말할 때 게이 같아.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외국어를 흡수할 때 음역을 차용하는 것과 달리,

博) 자료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朱亚军, 〈现代汉语词缀的性质及其分类研究〉, 《汉语学习》 第2期, 2001, 26쪽.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외국어(영어)가 그대로 수용되어 ‘味’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의 예문(1)에서 ‘e味’의 ‘e’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뜻한다. 이에 ‘味’를 더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열기로 가득찬 행사장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예문(2)에서 ‘GAY味’는 게이의 여자 같은 행동 분위기 및 언어적 느낌을 뜻한다. 이러한 표현은 비관습적 표현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만 전달되면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다.

〈표 2〉, 〈표 3〉, 〈표 4〉를 통해 공통적으로 ‘X+味’는 어근과 결합하여 음절 마지막에 위치하여 준접미파생을 일으킴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준접사는 단어 구성 시, 형태소의 위치가 점차 고정되어 나타나는데, 음절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쓰이던 것이 교착되는 것은 접사화의 주요 표지이다.²⁰⁾ 다시 말해서, 준접사 또한 접사와 마찬가지로 ‘접두’ 또는 ‘접미’와 같은 일정한 위치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위치가 고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준접사로 판단할 수 없다.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올림말로 수록된 ‘X+味’의 준접사적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합성어 33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 5〉 《现汉》에 올림말로 수록된 ‘X+味’의 합성어

| X의 품사 | ‘X+味’의 품사 | 예 | 시 |
|-------|-----------|---|---|
| 명사 | → | 海味, 口味, 卤味, 腊味, 药味 | |
| 수사 | 명사 | 五味, 一味 | |
| 동사 | → 동사 | 变味儿, 串味儿, 怪味儿, 回味, 提味儿, 体味, 调味, 玩味, 寻味, 吟味, 走味儿 | |
| 형용사 | → | 对味儿, 乏味, 够味儿, 寡味, 腻味 | |
| 동사 | 형용사 | 入味儿, 是味儿, 无味 | |
| | 구 | 别有风味, 不是味儿, 淡而无味, 耐人寻味, 山珍海味, 食不甘味, 原汁原味 | |

20) 苏宝荣·沈光浩, 〈类词缀的语义特征与识别方法〉, 《语文研究》 第133期, 2014, 7쪽.

〈표 5〉에서 제시한 어휘는 ‘X+味’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준접사 활용 양상으로 볼 수 없다. 이의 근거로 ‘추상화’, ‘범주화’, ‘품사 표시 기능’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준접사는 추상화된 의미를 갖는다. 위의 예에서 ‘怪味儿’, ‘海味’, ‘口味’, ‘食不甘味’, ‘五味’, ‘药味’, ‘一味’, ‘原汁原味’, ‘腊味’, ‘卤味’와 같은 어휘는 기본의미인 ‘맛’, ‘냄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근+어근’의 결합인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실질형태소로서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접사는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로부터 추상화된 의미를 내포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준접사는 범주화되어 공통된 의미로 나타난다. 위의 예에서 ‘变味儿’, ‘串味儿’, ‘回味’, ‘提味儿’, ‘体味’, ‘调味’, ‘玩味’, ‘寻味’, ‘吟味’, ‘走味儿’ 등은 ‘味’가 ‘맛’ 또는 ‘냄새’의 기본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확장의미로 제시되었던 ‘의미’, ‘재미’, ‘흥취’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沈光浩(2011: 110)에서는 준접사적 의미적 특성으로 ‘범주화(类推)’를 제시하며 준접사의 어휘적 의미는 어떤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공통적인 의미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준접사는 품사 표시 기능을 한다. 즉, 품사를 한정 및 전환시키는 것은 접사와 준접사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예컨대, 중국어의 대표적 접미사 ‘子’는 ‘刷子’, ‘推子’와 같이 앞의 형용사와 동사인 품사 성분을 명사로 귀속시킨다.²¹⁾ 이와 관련하여 朱亚军(2001: 25-27)에서는 접사나 준접사는 전체 단어나 구의 문법 속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X+味’의 X는 명사, 동사, 형용사성 어근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와 결합한 ‘X+味’는 명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味’는 명사 범주로 귀속시키는 준접사로 〈표 5〉에서 동사, 형용사, 동사구에서 쓰인 ‘味’는 준접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1) 박홍수·김영희, 〈준접사의 조어 특성에 관하여〉, 《언어와 언어학》 제48집, 2010, 35쪽.

2. 의미의 범주화 및 추상화

의미의 허화는 접사가 어휘적 의미를 소실하고 문법 기능적 의미만 가지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준접사의 경우, 의미의 완전한 허화가 아니라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허화되었다’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沈光浩(2011: 110)에서는 준접사의 의미 형성은 문법화 과정에서 ‘범주화(类化)’와 ‘추상화(泛化)’ 두 가지로 인해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苏宝荣·沈光浩(2014: 6-7)에서도 여러 논저에서 준접사의 의미 변화에 대해 ‘허화’, ‘범주화’, ‘추상화’와 같은 세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허화’는 접사의 의미적 특징이고, ‘범주화’ 또는 ‘추상화’는 준접사의 특징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준접사는 접사와 어근 사이의 언어단위로, 의미는 일반적인 허화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추상화를 통해 형성된 의미가 범주화되어 강한 조어 능력을 갖는다.

아래에서는 <표 3>, <표 4>, <표 5>에서 수집한 어휘를 X에 내포된 의미자질에 따라 유형화하여 ‘X+味’의 의미적 경향성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X의 의미자질은 크게 1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영어자모 및 기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X’의 의미자질에 따른 ‘X+味’의 분류

| X의 의미자질 | 예 | 시 |
|---------------------|--|---|
| [사람], [성별], [연령] | 人味, 淑女味, 女人味, 小女人味, 少女味, 男人味, 大叔味, 成人味, 儿童味, 母亲味, 年龄味, 人情味, 人间味 | |
| [지역], [국가], [민족] | 京味儿, 江湖味, 客家味, 楚味, 都市味, 城市味, 乡味, 乡村味, 农村味, 地方味, 中国味, 南味, 南国味, 洋味儿, 国际味, 世界味, 民族味 | |
| [학문], [지식], [교양] | 书生味, 学生味, 书卷味, 学术味, 学究味, 学院味, 哲学味, 文艺味, 知识分子味, 书法味, 人文味, 文化味 | |
| [직업], [일], [계층] | 领导味, 官味, 兵味, 军人味, 军阀味, 明星味, 星味, 流氓味, 强盗味, 贼味, 市侩味, 红五类味儿, 基层味 | |

| X의 의미자질 | 예 시 |
|------------------|---|
| [전문영역] | 科技味, 政绩味, 政治味 |
| [예술], [오락], [취미] | 广告味, 民谣味, 悲剧味, 儿戏味, 趣味, 兴味, 娱乐味 |
| [경제] | 金融味, 利欲味, 商业味, 物质味, 资产阶级味 |
| [시간], [시대] | 古味, 年味 |
| [자연], [환경] | 潮味, 风味, 风尘味, 泥土味, 土腥味儿, 太阳味, 土味, 世间味, 新潮味, 野味, 家常味, 历史味 |
| [상태] | 况味, 美味, 人气味, 深味, 异味, 余味, 滋味 |
| [사물] | 品味, 粉脂味, 金石味, 火药味, 霓虹味 |
| [종교] | 佛法味 |
| [맛] | 甘味, 苦味, 苦涩味 |
| [색] | 红味 |
| [성격], [태도], [감정] | 沧桑味, 腼腆味儿, 脾味, 气味, 情味, 邪味, 愚味 |
| 영어 | e味, GAY味, HI味 |
| 기타 | 思味, 意味, 韵味 |

위의 예를 통해 ‘味’는 다양한 의미자질의 어근과 결합하여 공통적으로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분위기], [느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味’의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로부터 추상화되어 새로운 의미인 [분위기], [느낌]로 발현된 것으로,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며 강한 파생력을 통해 점차 범주화되어 준접사적 활용이 활성화된 것이다. 즉, 준접사의 의미적 특성인 범주화 및 추상화가 명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근 X는 어느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 유형의 X가 ‘味’와 결합하여 어휘를 형성한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여러 영역의 X에 대한 느낌과 분위기를 ‘味’를 통해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의 경제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언어 공동체의 인식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로써 큰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높은 파생력과 결합력을 보인다. 이를

통해 형성된 ‘X+味’는 언어공동체 화자의 생활, 문화 속에 축적된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 [성별], [연령]의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X와 결합하여 그 사람의 분위기, 특성, 느낌을 나타낸다. 특히, ‘女人味’는 ‘여성스러움’을 뜻하며 말뭉치 분석에서 ‘N+味’ 키워드 검색 결과 가장 많은 예문이 나타나 ‘味’의 어근적 활용보다 사용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국가], [민족]의 의미자질은 그 도시, 지역, 국가, 민족이 상징하는 고유한 분위기를 뜻한다. 예컨대, ‘中国味’는 ‘중국스러움’을 나타낸다. [학문], [지식], [교양]의 의미자질과 결합은 한 분야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지적, 학문적 아우라를 나타낸다. 즉, ‘味’는 오랜 시간에 의해 어떤 대상에 형성된 분위기, 상징적인 분위기, 풍기는 느낌의 의미로 발현된다.

아울러, ‘X+味’의 강한 파생력으로 형성된 신조어를 통해 중국인의 인식 및 사회 현상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규정하는 전통적 사고방식, 세분화된 전문 분야의 형성, 지식 추구, 자본주의 추구, 적극적인 외래어 수용 등의 현상을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하면, ‘味’의 허화 정도는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실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화되어 형성된 새로운 의미이며, 동시에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IV. ‘X+味’의 인지 기제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수집한 ‘X+味’이 포함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활용되는 양상 및 이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통해 분석하고, 준접사 형성 과정을 도식화하겠다.

첫째, 맛의 구체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甘味’, ‘苦味’, ‘苦澀味’에서 ‘味’는[느낌]의 의미자질을 내포하며 감정 영역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3) 来了个漂亮的战术配合, 使中国队尝到了夺冠的**甘味**. (BCC)
멋진 전술 조합으로 중국팀에게 우승의 달콤함을 맛보게 했다.
- (4) 矜持的笑容遮盖不住某种**苦味**. (BCC)
어색하게 웃음 띠 얼굴은 괴로움을 숨길 수 없었다.
- (5) 话筒里传过去的却是笑声, 笑中含有**苦澀味**, …。(BCC)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것은 웃음소리였고, 웃음에는 괴로움이 섞여 있었다.

‘甘味’, ‘苦味’, ‘苦澀味’는 각각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느껴지는 단맛, 쓴맛, 씹쓸하고 떫은 맛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의 예문(3)-(5)에서 미각에 대한 신체적 경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감정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난다. ‘甘味’는 기쁨을 나타내며, ‘苦味’, ‘苦澀味’는 괴로움, 고통스러운 느낌을 표현한다. 이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의 느껴졌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을 감정 영역에 사상하여 [단맛은 기쁨], [쓴맛은 괴로움]의 개념적 은유를 형성하여 발현된 결과이다.

둘째, 일부 ‘X+味’의 결합에서 ‘味’는 기본의미인 미각 및 후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준접사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추상화되어 [분위기], [느낌]의 의미자질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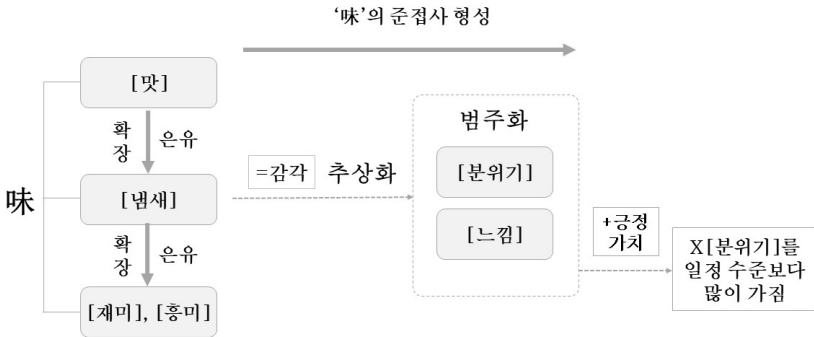
- (6) 如一个妈妈过于关爱子女, 只有“**母亲味**”失去“**女人味**”且会让孩子觉得决不能辜负妈妈、产生罪恶感, 带来心理压力, 容易抱怨, 甚至叛逆。(BCC)
만약 엄마가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엄마의 느낌’만 있고 ‘여성스러움’을 사라져 자녀로 하여금 엄마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죄책감이 생겨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쉽게 불평하고 심지어 반항하게 된다.

- (7) 北京宣南文化节在宣武区先农坛拉开帷幕, 展示老北京风情和**京味**传统文化神韵…。(BCC)
 베이징 쉬엔난 문화제가 선무구(区) 선농단에서 개막하여 옛 북경의 정취와 북경다운 전통 문화 풍모를 보여준다.
- (8) 我较熟悉身上既带着“**农村味**”又带着“**城市味**”的人, …。(BCC)
 나는 농촌과 도시적 분위기를 동시에 풍기는 사람이 익숙하다.
- (9) 虽穿着整齐的西装, 但还是流露出一种“**泥土味**”的憨直, 实在看不出他会是一个出名的农民企业家。(BCC)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도 시골 분위기를 풍기는 우직함, 정말 그가 유명한 농민사업가라고 보이지 않는다.
- (10) 你的深度, 你的气质, 你的修养, 和你的**书卷味**……你会是任何一个女人梦寐以求的丈夫啊!(BCC)
 당신의 깊이, 기질, 수양과 지적인 분위기… 당신은 어떤 여자라도 꿈꾸는 남편이 될 거예요.
- (11) 他那充满**金石味**的书画作品与长线包抄的独特线条语言, 洋溢着震撼人心的艺术魅力。(BCC)
 그의 단단한 느낌이 넘치는 서화 작품과 긴 실로 이은 듯한 독특한 선의 언어, 가슴을 울리는 예술적 매력이 넘친다.
- (12) 中日选手打得难解难分, 场上的“**火药味**”十足。(BCC)
 중-일 선수의 경기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경기장에는 강한 적의가 가득했다.

예문(6)에서 ‘母亲味’는 ‘어근+어근’의 결합에서 ‘어머니의 향, 냄새’를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문맥적 의미로 미루어 파악하면 엄마라는 역할이 상징하는 느낌을 나타내며, ‘여성스러움’과 비교하여 활용되고 있다. 예문(7)의 ‘京味’는 본래 ‘베이징 요리의 맛’을 나타내지만, 위의 예문에서는 베이징 도시가 상징하는 전통적인 분위기, 느낌을 나타낸다. 이는 모두 [전체로 부분을 대신함]의 하위 개념인 [범주로 특성을 대신함]의 개념적 환유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예문(8)의 ‘农村味’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곡식, 풀, 동물의 분노 등이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농촌의 자연적인 냄새를 나타내지만, 위의 예문에서는 농촌이 상징하는 ‘여유로움’ 및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양상은 예문(9)로 확장되어 환유적 개념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함]의 하위 개념인 [구성요소로 장소를 대신함]을 형성한다. 즉, ‘흙(→부분)’을 ‘농촌(→전체)’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개념화하여 역시 투박한 농촌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예문(10)의 ‘書卷味’는 본래 책 냄새를 나타낸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소유물로 소유자를 대신함]의 환유적 개념을 통해 어떤 사람의 지적인 분위기가 짙음을 나타낸다. 예문(11)의 ‘金石味’는 본래 쇠 냄새를 뜻하지만, 위의 예문에서는 [사물로 특성을 대신함]의 환유적 개념을 형성하여 굳고 단단한 느낌을 표현한다. 예문(12)의 ‘火药味’는 본래 화약 냄새를 뜻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화약의 상징성에 따라 [사물로 사건을 대신함]의 환유적 개념에 의해 ‘전쟁’을 표현한다. 이는 다시 ‘전쟁’과 어떤 ‘상황’이 나타내는 분위기의 개념적 유사성에 의해 [적대적인 분위기는 전쟁]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형성하여 격한 충돌, 대립 분위기를 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를 통해 확장된 의미는 추상화 및 범주화된 ‘味’의 의미적 특성과 결합하여 대상의 분위기, 느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지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X+味’ 인지 과정

〈그림 2〉에서 ‘味’의 기본의미인 ‘맛’은 감각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개념적 은유 기제를 통해 ‘냄새’, ‘재미’, ‘흥미’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는 모두 [감각]이라는 공통된 의미자질을 공유하며 추상화되어 [분위기]라는 새로운 의미자질을 형성한다. 이는 점차 범주화되어 준접미사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분위기], [느낌] 및 [~스러움]까지 포함하여 나타난다. 이때 ‘学术味’, ‘学究味’, ‘学院味’, ‘哲学味’, ‘文艺味’, ‘知识分子味’ 등과 같은 일부 어휘는 긍정 가치가 더해져 이러한 분위기가 일정 수준보다 많음, 즉 농후함, 짙음 등을 나타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味’를 준접사로 보는 관점에서, 사전 전수 조사(全數調査), 말뭉치 분석,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X+味’의 준접사적 경향성을 살피었다. 또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 발현 기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준접사는 공통적으로 파생력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접사는 허화를 통해 어휘적 의미를 소실한 반면, 준접사는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로부터 추상화된 어휘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사전에 수록된 ‘X+味’의 준접사적 활용은 비교적 많지 않다. 그러나 말뭉치 분석을 통해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다양한 신조어를 형성하며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기능적 측면에서 ‘X+味’는 신조어 형성에 용이하고 파생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X+味’가 과도기적 준접사이기 때문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다양한 파생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味’는 명사, 동사, 형용사 어근과 결합하여 다양한 파생 양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2음절 명사성 어근과의 결합력이 가장 높다. 또한 준접

사의 품사 표시 기능으로 인해 명사화되어 나타난다.

넷째, 구조적 측면에서 ‘味’는 마지막 음절에 고정적으로 위치하여 준접미파생이 나타난다.

다섯째, 의미적 측면에서 ‘X+味’는 추상화 및 범주화를 통해 [분위기], [느낌]으로 발현된다. 이는 ‘味’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본의미 및 확장의미를 통해 인지적 기제인 개념적 은유와 개념적 환유가 작용한 결과이다. 즉, 언어는 반복된 신체적 경험으로 인해 축적된 인지능력과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중국어에서 ‘味’는 준접사로 활용되어 다양한 신조어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준접사 관련 연구에 참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른 준접사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홍수·김영희, <준접사의 조어 특성에 관하여>, 《언어와 언어학》 제48집, 2010.
- 박홍수·이지은, <준접사 ‘X秀’에 관한 고찰>, 《중어중문학》 제76집, 2019.
- 박홍수·제윤지, <현대 중국어 준접사 ‘迷’에 대한 연구>, 《중국연구》 제78집, 2019.
- 박홍수·진윤영, <신생 준접사의 생성원인 및 조어 특징>, 《중국학보》 제73집, 2015.
- 윤유정, <허화 및 어법화의 개념과 과정>, 《중국어문학논집》 제19집, 2004.
- 이범열, 《현대중국어의 은유와 환유 그리고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2018.
- 이선희, <중국어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전이 재고(再考)>, 《중국어문학》 제60집, 2012.

- 임지룡·임혜원, 〈연결 도식과 그 은유적 확장〉, 《한글》 제276집, 2007.
-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82집, 2021.
- 조은정, 〈廣州語의 附加式合成語 중 人物을 나타내는 접사에 관한 研究〉, 《중국언어연구》 제19집, 2004.
- 陈光磊, 《汉语词法论》, 学林出版社, 1994.
- 李春玲, 〈论“X味”〉, 《辽宁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5卷, 第3期, 2007.
- 吕叔湘, 《汉语语法分析问题》, 商务印书馆, 1979.
- 马庆株, 《汉语语义语法范畴问题》,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998.
- 沈光浩, 〈现代汉语类词缀的界定标准与范围〉, 《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34卷, 2011.
- 苏宝荣·沈光浩, 〈类词缀的语义特征与识别方法〉, 《语文研究》 第133期, 2014.
- 尹海良, 《现代汉语类词缀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2007.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7版, 商务印书馆, 2016.
- 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2011].
- 朱亚军·田宇, 〈现代汉语词缀的性质及其分类研究〉, 《学术交流》 第2期, 2000.
- 朱亚军, 〈现代汉语词缀的性质及其分类研究〉, 《汉语学习》 第2期, 2001.
- BCC(北京语言大学大数据与语言教育研究所 <http://bcc.blcu.edu.c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si-affix characteristics of ‘味’ in ‘X+味’ in the modern Chinese language and to explore the

process of forming derivatives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Before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this study showed that quasi-affixes have the same grammat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as affixes, while affixes have lost their conceptual meaning through delexicals, but quasi-affixes can form various derivations based on abstract meanings.

It was found that ‘X+味’ has a high derivation power in the formation of new words when it comes to functions, in particular when combined with two-syllable noun roots. As for the structure, it is located in the last syllable of a word, causing a quasi-suffix derivation. From a semantic aspect, it is abstracted from the basic and derived meanings representing taste and smell to form and categorize the semantic qualities of atmosphere and feeling, showing the utilization of quasi-affixes.

This study found that such a process is closely related to our physical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taste, and, in particular, is the result of conceptual metaphor and metonymy.

Key Words : 준접사(Quasi-affix), 접사(Affix), ‘X+味’(X+wei), 현대 중국어(Modern Chinese language), 희화(Bleaching), 단어 형성 과정(Word-formation processes)